제6실 | 서적 | 고대 인도와 일본의 옛 경전

N-8 범본심경과 존승다라니

다라수 잎(패엽)을 건조시킨 후 양 끝을 자르고 가로로 경계선을 그어 『반야심경』과 『불정존승다라니』를 범자로 기록한 패엽경입니다. 고대 인도에서는 종이가 정착되기 이전에 다라수 잎을 사용한 패엽 사본이 성행했습니다. 이 패엽경은 가장 오래된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서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N-8부속 역경기

에도의 유시마에 레이운지 절을 창건한 진언종 승려 조겐(1639~1702)은 실담(범자 및 범어에 관한 학문) 학자로서도 알려져 있으며, 범학에 뛰어났습니다. 이 역경기는 1694년에 조겐이 호류지 절에 전래된 범자 패엽경 2엽, 『반야심경』과 『불정존승다라니』를 필사해, 이를 일본어로 읽을 때 참고하기 위한 글자와 기호를 붉은 색으로 표시하고 글의 의미를 기록한 뒤, 후기를 적은 것입니다.

N-11 현우경의 일부(오조무)

이 사경은 13권본 『현우경』 제5권의 사미수계자살품 제23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필자는 쇼무(聖武)천황으로 전해지지만 자필은 아닙니다. 어떤 사경보다도 글씨가 웅장하며 힘이 느껴진다 하여, '오조무(大聖武)'라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N-14 불명경

『불명경』은 과거의 과오를 뉘우치고 염불의 힘으로 속죄하기 위해 부처들의 명호를 이해하고 기억할 것을 설명한 경전입니다. 이 불명경은 과거, 현재, 미래 등 3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기 천 개의 불명(부처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각 권의 간기를 통해 1141년에 오사 류케이가 고인이 된 스승 린코 대사의 1주기를 공양하고 동시에 불명회를 개최하여 이 경전을 헌납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6실 | 염직 | 촉강금 띠와 백색 전

이번에는 호류지에 전해져 온 고대 염직품 중에서 매우 유명한 작품 중 하나인 <촉강금 띠>를 소개하고, 아울러 <백색 전>을 전시합니다. 아스카부터 나라시대에 걸쳐 호류지에서 사용했던 이 작품들은 대대로 전해져 오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염직 공예품 컬렉션으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00년 이전에 만들어졌다고는 볼 수 없는 선명한 색채의 촉강금과 먼 대륙으로부터 전해진 펠트 직물인 전을 통해 아스카부터 나라시대에 걸친 높은 예술성과 국제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N-47 촉강금 띠

이 비단은 기법상으로 경금(經錦)이라고 불리는데, 날실 방향으로 색깔이 들어간 실을 사용하여 그 실을 띄우거나 내리는 방식으로 무늬를 나타냅니다. 나라시대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으로 제작되는 비단은 씨실로 무늬를 표현하는 위금(緯錦)인데, 경금은 그보다 이전에 있던 오래된 기법입니다. 고대 중국의 촉나라(오늘날의 중국 쓰촨성 청두시 주변)는 금비단의 생산지로서 유명했습니다. 호류지에 전해오는 적색 바탕의 경금은 촉나라에서 제작된 금비단을 닮아 '촉강금'이라고 부릅니다. 격자무늬 안에 원으로 둘러싸인 연꽃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호류지에는 동일한 무늬의 금비단이 여러 점 전해오는데, 이 금비단은 작으면서도 가장 잘 정돈된 무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호류지의 전승에 따르면 쇼토쿠 태자의 태자비였던 가시와데 비의 허리띠였다고 합니다.

N-56 촉강금 번의 조각

호류지에서 전해오는 염직품을 대표하는 금비단입니다. 고대 중국의 촉나라(오늘날의 중국 쓰촨성 청두시 주변)에서는 금비단의 생산이 왕성하였으며 그 아름다움이 시문을 통해 일본으로 전해졌습니다. 호류지에서 전해오는 적색 바탕의 금비단은 촉나라에서 제작된 금비단을 닮아 에도시대에 '촉강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서아시아 스타일의 식물무늬와 원으로 두른 원무늬 안쪽에는 향로를 가운데 두고 마주한 사자와 봉황을 새기고 바깥쪽에는 페가수스와 수사슴이 새겨져 있습니다. 가운데 퇴색된 상태로 보아 원래는 불당을 장식했던 번(깃발)의 일부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N-54-1 백색 전

전(氈)은 양털을 압축하여 만든 펠트 직물의 깔개로 오늘날의 융단과 쓰임이 같습니다. 고대 사원에서는 승려들이 사용하였으며 일본에서는 호류지와 쇼소인에서만 전해져 옵니다. 전의 제작 공정은 오늘날의 펠트의 제작 공정과 같습니다. 양털을 풀어 나열하고 수분을 준 다음 말면서 압축시키는 과정을 거치는 데 이 과정으로 털이 서로 엉키며 한 장의 깔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펠트로 된 깔개는 지금도 유목민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 작품도 중앙아시아에서 제작된 뒤 당나라, 혹은 한반도를 거쳐 일본으로 전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얼핏 보기에는 밋밋한 작품이지만 그 이면에는 장대한 국제 교류의 한 장면이 숨어 있습니다.